

웅진케미칼, 인도네시아 자회사 매각

웅진케미칼(대표 박찬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웅진텍스타일의 매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도라마와 일본의 Toray가 현재 인수를 두고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웅진케미칼은 수일 안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웅진케미칼의 박찬구 대표와 안지용 최고재무책임자가 3월14일 계약 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인수전에 뛰어든 국내기업인 성안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인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격은 800억원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3/15>